

## 일본에서의 교환 유학

동덕여자대학교

윤지혜

짧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5 개월이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한 날은 폭풍우와 같은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아서 우산을 쓸 수 없었고, 학교 내에서 대기시설을 바로 찾지 못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대기시설 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반 년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4 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큼니다.

4 월에는 튜터와 벚꽃 구경을 가거나 나카메구로와 신오쿠보에 가 보면서 도쿄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5 월에는 골든위크가 있어서 친구들과 교토와 오사카도 여행했습니다. 교토에 내려가는 신칸센 안에서 아이몽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몽 콘서트에도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사이타마에 아이몽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시작할 수



없었던 성격인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영화관도 가고, 유학생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 월에는 국제 교류센터에서 문화체험교실에 참가하여 꽃꽂이를 배우고 국립극장에 가부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유학 기간이 1 학기로 짧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차대생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Summer program 에도 참가하고 일본인 학생들과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고, 오히려 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행사까지 마친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도전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회의가 끝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준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귀국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유카타를 입고 여름축제에 가거나, 오키나와 여행을 가거나 도쿄에서 유명한 베이커리를 가거나 학기 중에 바빠서 놀지 못했던 일본인 유학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은 전부 인상 깊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아마키 교수님의 '일본 사정 연습 4A'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듣는 수업으로, 매번 다른 학생과 한 팀이 되어 토론을 진행합니다. 교수님께서 토론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수업 전체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배우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한 학기 동안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유학을 한 경험은 저의 대학 생활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국인 학생과 소통하거나, 어떤 감정을 공유하거나, 같은 순간에 웃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돌아해보면 일본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일본에 무사히 입국해서 Jasso 장학금을 받고, 새로 지어진 기숙사에서 살 수 있어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제과 선생님과 하기와라 선생님, 니시자카 선생님, 데렉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